

2024년
고3
수능

2024년 시행 고3 수능 국어 독서 | (가) 개항 이후 조선의 개화 개념
(나) 20세기 초반 과학 정신에 대한 중국의 수용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척사파의 주장)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외국과 통상을 할 수 있게 항구를 개방하여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가함.)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짐.)**개화(‘개화’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성무(開物成務)**(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이룸.)와 **화민성속(化民成俗)**(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만들.)의 앞 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를 의미했다.

▶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개항 이후의 개화 개념)**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임오군란**(1882년 신식 군대(별기군)와의 차별에 분노한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난) 이후, 고종은 **자강(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음.)**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한성순보』의 개화 개념.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 간행 취지와 관련하여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의미 ①)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서양 기술과 제도를 선별적으로 수용함.)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의미 ②,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서 상징하는 개화의 실행 주체는 ‘왕’임.)도 담겼다.**

▶ 개항 이후의 개화 개념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이었다.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실행 주체)**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1884년 급진개화파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과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 개화 실행 주체가 변화한 것과 관련하여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에서였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갑신정변의 개화 개념)**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이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게 됨.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임.)**되었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 내고자 했다.(『서유견문』을 저술한 이유)**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개화 실행 주체가 왕에서 국가 구성원 전체로 변화함.)**을 의미했다.

▶ 갑신정변 이후 변화한 개화 실행 주체

을사늑약(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의 주장)**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박은식의 기본 전략 -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박은식의 견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박은식의 견해 ①)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박은식의 견해 ②)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박은식이 제시한 근대 주체)이었다.

▶ 박은식이 제시한 문명에 대한 견해

(나)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된 이유)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함.)되었다.

▶ 중국의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된 배경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옌푸의 견해 ①)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옌푸의 견해 ②)이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옌푸의 주장)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 옌푸의 견해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의 주장.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의 견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의 견해 ①)라 보고, 신문화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의 견해 ②)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空想)(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 봄. 또는 그런 생각)에 그칠 뿐]([]: 천두슈의 주장)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천두슈의 견해 ①)고 보았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의 견해

한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전마이(천두슈와 장전마이의 견해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장전마이의 견해 ①)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장전마이의 견해 ②)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장전마이의 견해 ③,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함.)

▶ 장전마이의 견해

(가)

핵심 정리

- 주제: 개항 이후 조선의 개화 개념의 변화
- 구성
 - 1문단: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
 - 2문단: 개항 이후의 개화 개념
 - 3문단: 갑신정변 이후 변화한 개화 실행 주체
 - 4문단: 박은식이 제시한 문명에 대한 견해

해제

이 글은 개항 이후 조선의 개화 개념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잡고,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와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담긴, 개화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한성순보』가 발간된다. 그러나 갑신정변 이후, 개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는데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해,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나)

핵심 정리

- 주제: 20세기 초반 과학 정신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견해
- 구성
 - 1문단: 중국의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된 배경
 - 2문단: 옌푸의 견해
 - 3문단: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의 견해
 - 4문단: 장진마이의 견해

해제

이 글은 20세기 초반 과학 정신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견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중국에서는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옌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진다.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한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진마이는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한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서지정보

저자 심연수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7753-8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4.11.30

가격 500원

